	한국사	<b>I.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16</b> 조선-4 조선사회사	학번	
	임종일 T		이름	

## ★신분제도가 자리잡다

by 법 : [ ]

양인 right : 과거에 응시 OK

duty : 납세의 의무 - &lt;조세, 공납, 역&gt;

천인 : [생구(生口)] right : X / duty : X

개인에 소속 : 사노비 / 국가에 소속 : 공노비

시간이 지나면서, [ ] 로 굳어짐

양반 - 중인 - 상민 - 천민 : 4신분제가 정착.

양인을 지배층인 양반과 피지배층인 상민으로 구분.

## ★신분에 따라 삶이 달라지다

양반 : 문반과 무반을 아울러 부르던 명칭

시간이 지나면서 문반, 무반 + 그 가족 까지 포함

&lt;지배 신분층&gt;의 호칭이 됨

군역을 면제받고, 과거를 통해 고위 관직을 독점

중인 :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신분

좁은 의미로는 잡과로 선발된 기술관

기술관 / 서리 / 향리 등 하급 지배층으로 자리잡음

+첩의 자식 (서얼)도 중인으로 취급받음

상민 : 피지배층 / 대다수가 농민

자기 소유 토지를 경작 or 양반의 토지를 소작하면서 생계유지

조세, 공납, 역의 의무를 담당

수공업자, 상인은 국역을 담당하면서도 농민보다 낮은 대우

한편, 양인 중에서 천역을 담당하는 신랑역천이라고 불리는 계층도 있었음.

(수군, 조례, 나장, 일수, 봉수군, 역졸, 조졸)

천민 : 최하층의 신분 - 대다수가 노비

재산으로 간주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 백정, 광대, 무당등도 천민 취급

## ★신분제의 변화 - 신분제의 동요

양난이후 농업생산력의 증가, 상품화폐경제 발달

: 부를 축적한 새로운 계층이 등장 [ 요호부민 ]

이들은 공명첩 / 납속책을 통해 양반이 되었다.

족보를 구매하거나 위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민의 수는 감소, 양반의 수는 증가

치열한 정쟁 &amp; 일당전제화 - 양반층도 분화

일부 양반은 중앙정치권력을 차지하고 권세를 누림

대다수의 양반은 향촌 사회에서 권위를 간신히 유지하는


[ 향반 ] or [ 잔반 ] 이 됨. : 신분제의 동요

&lt;서얼은 문과 응시가 제한됨&gt;

cf. 홍길동

農者天下之大本

cf. 박지원, 양반전

	한국사	<b>I.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16</b> 조선-4 조선사회사	학번	
	임종일 T		이름	

## ★신분상승노력

조선후기, **중인**층의 집단행동 - 신분을 상승하려 노력

**서얼** : 집단 상소운동

- 3사와 같은 청요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

정조 때 유득공, 박제가 등의 서얼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진출하기도 함.

이후 철종 때에는 서얼의 청요직 진출이 허용

**중인** : 대규모 상소를 통해 고위관직으로 진출하려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함.

=====

**노비** : 신분상승 노력이 활발하게 일어남

노비역시 군공을 세우거나 납속책을 통해 신분상승  
도망가기도 함.

조선정부도 상민의 수를 늘리려고 함

because of 국가재정확보

so, [ **노비종모법** ] 실시

& 순조, 공노비 해방

cf. 완전히 노비제도가 사라진 것은 갑오개혁 때.

**중인**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신분

-좁은 의미로는 잡과로 선발된 기술관

-기술관 / 서리 / 향리 등

하급 지배층으로 자리잡음

-첩의 자식(서얼)도 중인으로 취급

**[ 노비 ]**

고려~조선전기

: 일천즉천

조선후기

: 노비종모법

순조 : 공노비 해방

갑오개혁 : 신분제 폐지